

# 《朱子語類考文解義》 주석 체재 연구

강용중\*

---

## ◁ 목 차 ▷

---

- I. 서론
  - II. 연구범위와 방법
  - III. 《朱子語類考文解義》 주석 체재
  - IV. 《朱子語類考文解義》를 활용한 중국어사 연구의 의의
  - V. 결어
- 

## I. 서론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고대 문헌 가운데 중국어사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전래된 중국문헌<sup>1)</sup>이다. 우리 선조들의 문집이나 실록 또는 역사서에 보이는 문장은 엄밀하게 말해 중국어사의 연구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부 문헌은 중국어사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걸대》나 《박통사》 등의 회화류 역사서이다. 그렇다면 중국어사 연구와 관련하여 이러한 고전의 텍스트 자체로서의 연구가치가 있는 일부의 문헌 이외의 자료는 없는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고문헌에 보이는 방대한 주석서의 경우 중국어사 연구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四書三經》이 經書釋義라는 형식으로 주석되어 전해져 온다. 경서석의에서 사용한 언어는 일반적으로 고문이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많이 행해진 이러한 註釋書에는 경전의 다양한 道義 방면의 풀이와 언어적 주석이 공존한다. 그 중 언어적 주석은 품

---

\*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1) 여기에서 말하는 중국문헌이란 중국에서 중국인이 직접 기록하여 출간하고, 다시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내려오는 일체의 문헌이다.

注나 訓詁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므로 공시적 텍스트에는 비길 바가 안 되지만 일부 내용은 중국어사 연구에 훌륭한 자료로 충당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朱子語類》의 주석서인 《朱子語類考文解義》를 대상으로 중국어사 연구에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주석의 체재를 살펴 보려고 한다. 주지하듯이 《朱子語類》는 남송의 朱子(1130~1200년)가 자신의 후반기 40여 년을 500여명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남긴 장편의 어록집이다. 이들 어록은 100여 명의 문인들이 남긴 것으로 성리학의 주요범주, 《四書五經》강의, 道通系譜와 道通論, 역대 역사의 평가, 諸子평가, 訓門人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백과전서이다. 이러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조선시대 중기 특히 퇴계 이후에는 유학자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하였고 다양한 연구서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들 연구서 중 가장 탁월한 성과는 《朱子語類考文解義》이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이의철(李宜哲: 1703~1778년)이 총 140권에 달하는 《朱子語類》의 전편에 대해 주석한 세계 유일의 《朱子語類》주석서이다.

한편 《朱子語類》는 220만여 자에 달하는 巨帙로, 송대 理學思想을 연구하기 위한 최적의 텍스트일 뿐만 아니라 남송의 구어를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이는 《朱子語類》의 기록을 남긴 주자의 門人들이 선생님의 육성을 전하기 위해 구어체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송의 구어자료로서의 가치가 더해진 때문이다.

그러므로 《朱子語類》를 대상으로 주석한 《朱子語類考文解義》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어체 즉 語錄體 문장에 대한 풀이를 진행했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朱子語類考文解義》의 중국어사 연구의 의의는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파생된 자연스런 결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朱子語類考文解義》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한 편의 논문으로도 나온 적이 없다. 비록 규장각<sup>2)</sup>이나 장서각<sup>3)</sup>의 해제가 보이고, 한 연구자

2) 규장각 해제는 아래 참조.

[http://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MOK&ptype=list&subtype=sm&lclass=AL&mclass=&sclass=&ntype=hj&cn=GR30361\\_00](http://kyujanggak.snu.ac.kr/MOK/CONVIEW.jsp?type=MOK&ptype=list&subtype=sm&lclass=AL&mclass=&sclass=&ntype=hj&cn=GR30361_00)

3) 한국학전자도서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해제는 아래 참조.

<http://221.150.168.65/DLiWeb20/components/searchir/detail/detail.aspx?cid=117007>

가 대만에서 소개한 경우<sup>4)</sup>를 제외하고 전문 학술 논문으로 출간된 사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朱子語類考文解義》에 보이는 주석의 다양한 체재를 정확하고도 분명히 개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 책이 주석서인 만큼 어떠한 방식을 활용하고 체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작업은 매우 긴요하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朱子語類考文解義》에 나타난 주석의 체재를 古書의 주석 이론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귀납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 연구범위와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3장에서는 《朱子語類考文解義》에 보이는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본문에 해당하는 ‘考文解義’를 중심으로 그 주석 체재를 구분하여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러한 주석 중 언어 현상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중국어사 연구에서의 의의를 개괄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朱子語類考文解義》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자 이 책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 II.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이의철의 《朱子語類考文解義》를 대상으로 중국어사 연구에서의 의의와 주석의 체재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현전하는 《朱子語類考文解義》는 두 판본이 있다. 원본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간단한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1774년(영조 50년) 李宜哲이 지은 것으로 42권 10책의 필사본이며 사이즈는 29.3×19cm이다(규장각청구기호: 古1344-19). 이 규장각본은 현대에 영인된 적이 없으며, 규장각에 원본과 마이크로필름본이 보관되어 있다. 한편 장서각본(장서각 도서번호 3-138)은 규장각본을 正書한 것으로 형태서지를 살펴보면 線裝, 42卷10冊: 四周雙邊, 半郭 20.1 × 15cm, 烏絲欄, 半葉 9行18字, 註雙行, 上一葉花紋魚尾; 33 × 21.2cm이다. 이 판본은 이미 한 출판사에서 영인하였다.<sup>5)</sup> 한편 현대

4) 2012年“跨文化視域下的儒家倫常”國際學術研討會(臺灣師範大學國際與僑教學院聯合本館、武漢大學國學院共同主辦: 3月16日~17日)에 발표된 鄭瑋謨 교수(中國海洋大學韓國語系)의 〈李宜哲의《朱子語類考文解義》考〉 참조.

적인 표점본은 장서각본을 저본으로 하여 2013년 출판되었다.<sup>6)</sup> 본고는 이 표점본을 활용하기로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규장각의 원본 및 장서각의 정서본을 참조하기로 한다.

3장에서 다루는 《朱子語類考文解義》의 구성요소와 주석 체제는 이 책에 보이는 큰 순서에 따라 살펴 볼 것이다. 《朱子語類考文解義》는 매 권이 본문에 해당하는 ‘考文解義’와 ‘補義’, ‘考異’, ‘今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考文解義’와 ‘考異’는 매 권에 다 보이지만 ‘補義’나 ‘今考’는 간혹 생략되기도 한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考文解義’ 부분이다. 다만 《朱子語類考文解義》의 전체 분량이 50만 자 이상이어서 모든 주석을 귀납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전체 분량의 1/10에 해당하는 제1~14권까지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주석 체제를 귀납하고, 이에 근거해 전편에 걸쳐 적절한 용례를 선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考文解義’는 《朱子語類》 본문에 대한 전방위적 주석이다. 여기서 전방위적이라 함은 단락 전체의 大義 해설은 물론이고 한 문장에 대한 개괄이나 개별 단어 등에 대한 주석도 보여, 저자 이의철이 그의 해박한 지식을 활용하여 조선유학자들이 보기에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朱子語類》 전편에 대한 뛰어난 가이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考文解義’에 나타난 주석의 체제를 귀납하고 정리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解題’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4장에서 다루는 중국어사 연구와의 관련성과 의의에 대한 서술은 《朱子語類》가 남송의 구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考文解義’에 나타난 근대중국어 성분에 대한 주석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형식적으로는 표지가 있는 주석과 표지가 없는 주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내용적으로는 음운, 어휘, 어법으로 구분하여 소개할 것이다.

다만 본고의 편목 관계로 말미암아 《朱子語類考文解義》 전체의 주석을 절대귀납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이후에 《朱子語類考文解義》의 DB를 구축한다면 본고의 논의보다 더 정확하

5) 李宜哲, 《朱子語類考文解義》上·下, 民族文化文庫, 2001년. 이 영인본에는 이동인 교수의 해제가 있다.

6) 李宜哲 著 이영호·정선모 主編, 《朱子語類考文解義》,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년.

고 전면적이며 훨씬 풍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겠지만, 본고가 이러한 대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교량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Ⅲ. 《朱子語類考文解義》 주석 체재

#### 1. 《朱子語類考文解義》의 목차

《朱子語類考文解義》의 전체적인 구성은 《朱子語類》의 140권 전편을 대상으로 42권 10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각 권별로 대응시켜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 語類攷解一: 〈朱子語類考文解義序-文集考異〉·〈目錄第一〉·〈語類大全序畧〉·〈語類黎公編叙〉
- 第一卷[理氣] 〈太極天地〉·〈天地下〉;
- 第二卷[鬼神];
- 第三卷[性理] 〈人物氣質之性〉·〈性精心意等名義〉·〈仁義禮智等名義〉;
- 第四卷[學] 〈小學〉·〈總論爲學之方〉·〈論知行〉·〈讀書法上〉·〈讀書法下〉·〈持守〉·〈力行〉;
- 第五卷[大學] 〈綱領〉·〈經上〉·〈經下〉·〈傳〉·〈或問(1)〉·〈或問(2)〉
- 語類攷解二: 〈目錄第二〉
- 第六卷[論語] 〈論孟綱領〉·〈學而上〉·〈學而中〉·〈學而下〉·〈爲政上〉·〈爲政下〉·〈八佾〉·〈里仁上〉·〈里仁下〉;
- 第七卷[論語] 〈公治長上〉·〈公治長下〉·〈雍也一〉·〈雍也二〉·〈雍也三〉·〈雍也四〉·〈述而〉·〈泰伯〉·〈子罕上〉·〈子罕下〉·〈鄉黨〉
- 語類攷解三: 〈目錄第三〉
- 第八卷[論語] 〈先進上〉·〈先進下〉·〈顏淵上〉·〈顏淵下〉·〈子路〉·〈憲問〉·〈衛靈公〉·〈季氏〉·〈陽貨〉·〈微子〉·〈子張〉·〈堯曰〉;
- 第九卷[孟子] 〈梁惠王〉·〈公孫丑上〉·〈公孫丑上之下〉·〈公孫丑下〉·〈滕文公〉·〈離婁上〉·〈離婁下〉·〈萬章上〉·〈萬章下〉·〈告子上〉·

7) 이 목록은 이동인교수의 규장각 해제에 근거해 각 卷首의 목차를 중심으로 재편집한 것이다. 규장각 해제는 각주(2)의 링크 참조.

〈告子下〉·〈盡心上〉·〈盡心下〉;

第十卷〔中庸〕〈中庸一〉·〈綱領〉·〈中庸二〉·〈中庸三〉

語類攷解四:〈目錄第四〉

第十一卷〔易〕〈綱領上〉·〈綱領上之下〉·〈綱領下〉;

第十二卷〔易〕〈乾上〉·〈乾下〉·〈屯〉·〈噬嗑〉·〈咸〉·〈困〉;

第十三卷〔易〕〈上繫上〉·〈上繫下〉·〈繫辭下〉·〈說卦〉

語類攷解五:〈目錄第五〉

第十四卷〔尚書〕〈綱領〉·〈禹貢〉;

第十五卷〔詩〕〈綱領〉·〈周南關雎〉;

第十六卷〔孝經〕〔春秋〕〈綱領〉;

第十七卷〔禮〕〈綱領〉·〈儀禮〉·〈周禮〉;

第十八卷〔禮〕〈小戴禮〉·〈大戴禮〉

語類攷解六:〈目錄第六〉

第十九卷〔禮〕〈冠婚喪〉·〈祭〉·〈雜儀〉;

第二十卷〔樂〕〈古今 ○〉;

第二十一卷 〈孔孟周程〉·〈周子之書〉;

第二十二卷 〈程子之書一〉·〈程子之書二〉·〈程子之書三〉

語類攷解七:〈目錄第七〉

第二十三卷 〈張子書一〉·〈張子書二〉·〈邵子之書〉;

第二十四卷 〈程子門人〉·〈楊尹氏門人〉·〈羅氏門人〉;

第二十五卷〔朱子〕〈自論爲學工夫〉·〈論自注書〉;

第二十六卷〔朱子〕〈外任〉·〈內任〉;

第二十七卷〔朱子〕〈論治道〉·〈論取士〉·〈論兵〉·〈論民〉·〈論官〉

語類攷解八:〈目錄第八〉

第二十八卷〔朱子〕〈訓門人一〉·〈訓門人二〉·〈訓門人三〉·〈訓門人四〉·〈訓門人五〉·〈訓門人六〉·〈訓門人七〉·〈訓門人八〉·〈訓門人九〉;

第二十九卷 〈呂伯恭〉·〈陳君舉 陳同父 葉正則 ○〉;

第三十卷 〈陸氏〉;

第三十一卷 〈老氏 莊 列 ○〉·〈釋氏〉;

第三十二卷〔本朝 祖宗事實〕〈太祖朝〉·〈法制〉

語類攷解九:〈目錄第九〉

第三十三卷〔本朝〕〈自國初至熙寧人物〉·〈自熙寧至靖康人物〉;

第三十四卷〔本朝〕〈中興至今日人物上〉·〈中興至今日人物下〉·〈盜賊〉;

第三十五卷 〈歷代一〉·〈歷代二〉·〈歷代三〉;

第三十六卷 〈戰國漢唐諸子〉;

- 第三十七卷 〈雜類〉;  
 第三十八卷 〈作文上〉·〈作文下 詩〉  
 語類攷解十:〈目錄第十〉[附錄]  
 第三十九卷 〈大全正集考異辨義一〉;  
 第四十卷 〈大全正集考異辨義二〉;  
 第四十一卷 〈大全正集考異辨義三〉;  
 第四十二卷 〈大全正集考異辨義四〉

이 목차를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매 단락의 ‘語類攷解’ 1~10은 《朱子語類考文解義》의 총10책을 표시한다. 이 10책의 서두에는 〈目錄〉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1~10까지 정리되어 있다. 다음으로 괄호 없이 ‘第~卷’으로 표시된 것은 《朱子語類考文解義》의 전체 42권을 나타낸다. 이 권 사이에는 ‘;’로 표시했다. 그리고 이 ‘第~卷’ 아래의 ‘〈~〉’는 《朱子語類》 140권의 제목 또는 첫 주제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이 ‘〈~〉’는 총140개가 된다. 마지막으로 ‘第~卷’아래의 ‘[~]’는 대표 정전이나 주제를 나타내는 큰 제목이다.

## 2. 《朱子語類考文解義》의 구성

《朱子語類考文解義》는 크게 ‘考文解義’, ‘補義’, ‘考異’, ‘今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考文解義’는 이 책의 본문에 해당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주석의 체재는 이 ‘考文解義’를 대상으로 하므로 우선 나머지 ‘補義’, ‘考異’, ‘今考’ 등을 살펴보기로 하자.

‘補義’는 매 권의 ‘考文解義’에 바로 이어서 출현한다. ‘補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第一卷[理氣]〈太極天地上〉 말미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凡當入此本類，而散見他類者，抄其大旨，附諸本類之下，或附見於各條之間，名以‘補義’，或稱‘補語’，所以補其缺，以便於考閱也。<sup>8)</sup>(무릇 이 부류에 포함시켜야 하나 다른 부류에 흩어져 출현하는 것을 그 주요 요지를 抄略하여 이 부류 아래에 附記하거나 각 조의 사이에 보이는 곳에 부기하니, 이를 ‘補義’ 또는 補語라 칭하

8) 李宜哲 著 이영호·정선모 主編, 《朱子語類考文解義》,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년, 23쪽.

고, 그 결함을 보충하여 열람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설명에 따르면 ‘補義’(또는 補語)는 《朱子語類》가 주제별로 편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락은 상관성이 떨어지는 부류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 잡았다는 의미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朱子語類》의 전체 단락은 14만여 개에 이른다. 이들 단락의 상관성을 밝혀내고 해당 부류에 다시 列入 시키는 작업은 텍스트에 대한 고도의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저자 이의철의 높은 학문적 경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이 경우 《朱子語類考文解義》는 단순한 주석서에 머무는 것이 아닌 텍스트에 대한 고도의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考異’에 대한 설명은 第一卷 앞의 〈朱子語類大全卷目〉 다음에 보인다.

考異者也, 考正其文之異同也.<sup>9)</sup>(‘考異’란 글자나 단어가 차이가 있는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考異’란 설명대로 원문의 誤字나 脫字 혹은 本字를 판본이나 문맥 또는 典故에 기초해 바로잡은 것이다. 이 ‘考異’는 매 권의 말에 빠짐없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考異’는 저자 이의철이 다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영조 43년(1767년) 洪啓禧(1703-1771)가 全州監營과 嶺南監營에서 《朱子語類》를 再刊할 때 만든 초기의 ‘考異’에 대해 이의철이 철저히 분석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의철의 ‘考異’는 《朱子語類》라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필경 당시에 접할 수 있었던 《朱子語類》의 판본이나 상관자료는 지금보다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의철과 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의 어감으로 교감한 것이어서 이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考異’는 교감학의 좋은 본보기이므로 후속적인 상관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今考’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今考’에 대해 이의철은 다음의 언급을 하였다.

9) 전계서 18쪽.



洪所遺失, 以今考正者.<sup>10)</sup>(홍계희가 누락한 것을 지금 바로잡은 것이다.)

즉 ‘今考’란 ‘考異’에서 누락된 것을 저자가 보충하여 바로잡은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考異’에 비해 분량은 많지 않으나 이의철이 직접 보충한 것이어서 자료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또한 ‘考異’와 마찬가지로 교감학의 연구 자료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朱子語類》를 연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今考’는 각 항목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 3. 《朱子語類考文解義》의 주석 체재

고서의 주석 체재를 살피기 위해서는 註釋學에서 다루는 전문 술어에 대해 알아 보아야 한다. 《朱子語類考文解義》라는书名에서 주석학과 관련된 두 가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즉 ‘考文解義’에서 보는 대로 ‘文’을 ‘考’하고, ‘義’를 ‘解’한다는 의미므로 주석학과 연관시켜 보자면 이 ‘考’와 ‘解’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

汪耀南의 《注釋學綱要》(박재건 역, 《문자교감 그리고 注釋의 異名과 釋名》, 태일사, 2001)에 따르면 ‘考’란 ‘源流’를 고증하고 학술을 분변하여 밝히며, 증거를 인용하여 시비를 판별하는 것’(68쪽, 114쪽)이라고 했다. 일반적인 확장명으로는 ‘考源’, ‘考證’, ‘考訂’, ‘考辨’, ‘考略’, ‘通考’, ‘考異’, ‘注考’ 또는 ‘~~考’ 등이 있다. 그러나 ‘考文解義’에서 ‘考’의 목적어가 ‘文’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부류와는 좀 다른 용법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주석의 사례나 목적어 ‘文’과의 결합으로 볼 때 앞의 ‘考異’나 ‘今考’ 등의 사례와 유사한 용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은 글자나 단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考文解義’의 ‘考文’은 문자적인 또는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 판별하고 풀이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汪耀南은 ‘解’에 대해서 ‘典籍에 사용되면 단어나 章句 또는 義理 등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57쪽, 108쪽)이라고 했다. ‘考文解義’의 ‘考文’이 문자적이거나 언어적인 문제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解’의 대상이 ‘義’이므로 ‘解義’란 ‘의리를 풀이하고 분석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앞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朱子語類考文解義》란 《朱子語類》에 대해 ‘문자적인

10) 전계서 35쪽.

또는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 판별하고 풀이하며, 의리를 풀이하고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朱子語類考文解義》의 본문인 ‘考文解義’의 구체적인 양상은 어떠한가? 그리고 주석의 체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본 소절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 1) 전체단락이나 한 대화의 대의 해설

우선 주석의 범위가 가장 큰 전체 단락이나 독립적인 대화의 大義를 해설하는 사례를 보기로 하자.

#### ◀원문8-25-132▶<sup>11)</sup>

8:25 【學問是自家合做底】. 不知學問, 則是欠闕了自家底; 知學問, 則方無所欠闕. 今人把學問來做外面添底事看了. 廣.<sup>12)</sup>(학문이란 스스로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학문을 모르면 스스로에게 결함이 있게 하는 것이고; 학문을 알게 되면 결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학문을 자신의 밖에 치장하는 것쯤으로 여긴다.)

#### ◀해의58-5▶<sup>13)</sup>

【學問是自家合做底】○人不可不學之由, 又見下文三條, 又見〈訓門人六之四〉爲詳.(사람이 학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세 기록을 참조하고, 또 〈訓門人六之四〉을 보면 상세하다.)

우선 원문의 【~】는 ‘해의’에 주석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원문과 해의의 번역을 참조해 보면 해의의 내용이 바로 원문의 전체 단락에 대한 대의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이한 것은 《朱子語類考文解義》에서 圈點인 ‘○’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 권점이 전체 단락인지 아니면 독립된 대화에 국한되는지를 알 수 있는 예가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11) 《朱子語類》의 원문을 가리키며, ‘8-25-132’은 각각 제8권, 제25문단, 132쪽(《朱子語類》中華書局)을 나타냄.

12) 각 원문의 말미에 있는 이름은 朱子의 문인이자 해당 문단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다.

13) 《朱子語類考文解義》를 가리키며, ‘58-5’는 ‘58쪽(李宜哲 著 이영호·정선모 主編, 《朱子語類考文解義》,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제5단락을 나타냄.

## ◀ 원문11-81-186 ▶

【因求講學】言論傳之，答曰：“聖賢之言，明如日月。”又曰：“人有欲速之病，舊嘗與一人讀詩集，每略過題一行，不看【題目】，卻成甚讀詩也！又嘗見龔實之輜中只着一冊文字看，此其專靜也。且云：‘尋常出外，輜中着三四冊書，看一冊厭，又看一冊，此是【甚功夫】也！’”方。(강론하신 말씀을 알리자고 간구하자 “성현의 말씀은 해와 달처럼 밝다.”라고 답하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빨리 이루려는 폐단이 있다. 예전에 어떤 사람과 함께 시집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매번 제목 한 줄은 생략하고 지나갔다. 제목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를 읽는다 하겠는가! 또 일찍이龔實之가 가마에서 단지 책 한 권의 책만을 가지고 읽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고요함에 전일한 것이다.”라고 하시며 또 ‘평소 밖에 나갈 때 가마에서 서너 권의 책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한 권을 보다 싫어지면 또 다른 책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무슨 공부가 되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 ◀ 해의72-4 ▶

【因求講學】○謂求先生講學言語，錄爲文字以傳於世，而先生謂所講經傳，明如日月，不須錄傳。(선생이 강의하신 말씀을 문자로 기록하여 세상에 전할 것을 건의하자, 선생께서는 강의 중 경전은 해나 달과 같이 분명한 것이니 기록해 전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다는 말이다.)

위의 원문은 그 앞의 문단보다 길다. ‘해의’에 권점이 있으므로 대의를 설명한 것 입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원문의 ‘因求講學言語傳之，答曰：“聖賢之言，明如日月。”’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又曰’로 시작하는 이후의 문장들은 해의에서 풀이하고 있는 내용과 무관하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권점을 사용한 경우 문단 전체 혹은 특정 대화 전체의 대의를 해설한 것이라는 점이다.

## 2) 특정 어구나 구절에 대한 해설

앞의 경우와 달리 의미나 의리를 해설하되 그 단위가 특정 어구나 구절을 해설하는 경우도 있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원문8-26-133 ▶

聖賢只是【做人當爲底事盡】。今做到聖賢，止是恰好，又不是過外。祖道。(성현이란 다만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 한 사람이다. 지금 시대에 성현이 나

온다면 마침 좋은 것이지 지나치거나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해의58하4▶

【做得人當爲底事盡】謂做盡人所嘗爲之事而已。(사람이 일찍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일 따름이라는 뜻이다.)

이 경우는 【~】로 표시된 부분만 해설하는 사례이다. 이는 앞에서 본 권점을 표시하여 전체를 해설하는 경우와 다르다.

다른 사례를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원문8-22-132▶

8:22 “如今學問未識箇入路，【就他自做，倒不覺】。惟既識得箇入頭，卻事事須着理會。【且道世上多多少少事】!” 江文卿云：“只先生一言一語，皆欲爲一世法，所以須着如此。” 曰：“不是說要爲世法。既識得路頭，許多事都自是合着如此，不如此不得。自是天理合下當然。” 賀孫。(요즘의 학문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 채 자신의 견지에서만 스스로 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각하지도 못한다. 반드시 시작할 곳을 알고 나서 매사를 다 처리해야 한다. 마치 ‘세상에는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江文卿이 “선생의 한마디 한마디가 단지 다 한 시대의 본보기가 되니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요.”라고 하자 선생께서는 “한 시대의 본보기가 되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시작할 곳을 알게 되면 온 갖가지 일들이 다 바로 응당 이렇게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하늘의 이치가 원래 그런 것이다.”라 하였다.)

◀해의58-4▶

【就他自做，倒不覺】謂自以私見做工夫，則反不識入道路徑也。倒，猶反也。(스스로 사견으로써 공부를 하면 오히려 도(道)로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倒는 反과 같다.)

【且道世上多多少少事】謂今且試言之，天下是幾多事乎? 言不可不事事理會也。(‘지금 또 시험 삼아 말해보면 천하에는 얼마나 많은 일이 있나?’라는 의미이다. 일마다 빠짐없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이상의 ‘해의’에 보이는 세 예문을 통해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풀이의 첫 글자는 ‘謂’이다. ‘謂’는 訓詁學 또는 注釋學에서 ‘~의 의미이다’ 또는 ‘~의 뜻이다’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특정 어구나 구절을 해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謂’를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앞의 세 경우 다 원문은 구어 표현인

어록으로 되어있으며, 그것의 풀이인 ‘해의’에서는 오히려 고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지식인과 공시 중국어 또는 중국어 구어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좋은 예이다. 당시 지식인들은 과거준비나 지식의 확장을 위해 고문을 익혀온 반면, 구어로 된 공시중국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朱子語類》와 같은 어록체 문장을 대할 때는 언어장벽(언어학에서는 ‘언어장애’라고도 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난해한 어구나 의리를 밝혀야 하는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고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이한 점은 經書釋義나 語錄釋義가 다 한글로 수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당시 지식인 중 經書釋義나 語錄釋義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쌍방이 고문으로 소통가능하다는 말이 되며, 이 경우 한글을 위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앞의 ①과 ②는 전형적인 ‘解義’ 즉 ‘의리를 풀이하고 분석’한 주석에 속하는 것들이다.

### 3) 典籍의 출처 표시

여기서는 《朱子語類》 원문에 나타난 문구나 말의 출처를 제시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 원문3-25-41 ▶

【先儒言】：“口鼻之嘘吸爲魂，耳目之聰明爲魄。”也只說得大概。卻更有箇【母子】，這便是坎離水火。煖氣便是魂，冷氣便是魄。魂便是氣之神，魄便是精之神；會思量討度底便是魂，會記當去底便是魄。又曰：“見於目而明，耳而聽者，是魄之用。老氏云載營魄，營是晶熒之義，魄是一箇晶光堅凝物事。釋氏之【地水火風】，其說云，人之死也，風火先散，則不能爲祟。蓋魂先散而魄尙存，只是消磨未盡，少間自塌了。若地水先散，而風火尙遲，則能爲祟，蓋魂氣猶存爾。”…… 備。(先儒[鄭玄을 말함]가 “입과 코로 호흡하는 것은 魂의 작용이고 귀와 눈으로 잘 듣고 보는 것은 魄의 작용이다.”(“口鼻之嘘吸爲魂，耳目之聰明爲魄.”: <예기주소 祭義>))라고 말했으나 역시 단지 대략 말한 것이다. 오히려 그밖에 하나의 바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坎卦의 水와 離卦의 火이다. 따뜻한 기운이 魂이고, 차가운 기운이 魄이다. 魂은 바로 기의 신이고 魄은 바로 정의 신이다. 사고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 魂의 작용이고 기억해 갈 수 있는 것이 魄의 작용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여 잘 볼 수 있고 귀에 들려와 잘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백의 작

용이다. 노자가 ‘載營魄’(<도덕경 上 能爲>)이라 했는데 여기서 營은 아주 밝다는 뜻이고 魄은 밝고 딱딱한 어떤 물건이다. 佛家에서 地, 水, 火, 風 등을 말할 때 사람이 죽으면 風과 火가 먼저 흩어진다고 했는데 그러한 즉 殃禍를 끼치지 않는다. 무릇 혼이 먼저 흩어지고 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단지 다 닳아 없어지지 않은 것이지 잠시 후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塌 陷). 만약 地와 水가 먼저 흩어지고 風과 火가 여전히 지체하고 있다면 양화를 부릴 수도 있으니 대개 魂氣가 아직 남아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셨다. ……)

◀해의37-3▶

【先儒言】即鄭注《禮》〈祭儀〉文。(즉 鄭玄의 《禮記》注 〈祭儀〉에 보이는 글이다.)

【母子】母子, 謂母也, 非謂母與子也。見《論語學而三十六》〈解義〉。此言坎離, 水火冷暖之氣, 爲本根之母。然後始有呼吸聰明之類也。(母子는 ‘母’의 뜻이지 어미와 아들의 母가 아니다. 《解義》〈論語學而三十六〉을 보라. 여기서는 坎離, 水火, 冷暖 등이 근본의 바탕이 되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呼吸, 聰明 같은 것들이 있다는 말이다.)

【地水火風】《圓覺經》文, 見《釋氏三十二》。此即‘四大’也。見下板。(《圓覺經》에 나오는 문장으로 《釋氏三十二》을 보라. 이것은 바로 ‘四大’이다. 다음 板을 보라.)

◀원문116-18-2792▶

……或問: “人講學不明, 用處全差了.” 曰: “不待酬酢應變時. 若學不切己, 自家一箇渾身自無處著, 雖【三魂七魄】, 亦不知下落, 何待用時方差?” ……以下訓謙.(혹자가 “사람이 학문을 강구하는 것에 밝지 못하면 실제 일처리에서 완전히 틀어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 여쭙자, 선생께서 “응대하고 변화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만약 학문이 자신에게 절실하지 않으면 스스로 몸 전체가 저절로 어디에도 깃들 곳이 없게 된다. 아무리 三魂七魄이라 하더라도 역시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어찌 일처리 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틀어지겠는가?” 아래는 謙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다.)

◀해의745하2▶

【三魂七魄】文出《抱朴子》及《黃庭經》〈序〉。道家書以爽靈, 胎光, 幽精爲三魂. 七魄, 當考. 又佛家以耳目鼻口七竅爲七魄.(이 말은 《抱朴子》와 《黃庭經》〈序〉에 보인다. 도가의 서적에는 爽靈, 胎光, 幽精을 三魂이라고 했다. 七魄은 고찰해야 한다. 또 불가에서는 耳目鼻口의 七竅를 七魄이라고 했다.)

이상의 두 예문에서는 【先儒言】, 【地水火風】, 【三魂七魄】 등이 각각 鄭玄의 《禮記》〈祭儀〉注, 《圓覺經》, 《抱朴子》와 《黃庭經》〈序〉에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기록문헌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경전이나 전고를 많이 사용한 다

는 것이다. 만약 출처를 모른다면 그 구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주석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확한 출처의 제시는 주석서로서의 기능이 배가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4) 서로 다른 문단을 활용한 互註

《朱子語類考文解義》에 보이는 주석의 또 다른 형식은 서로 다른 불에 속하는 단락을 연관 시켜 주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

##### ◀원문3-33-42▶

魂屬木, 魄屬金. 所以說【三魂七魄】, 是金木之數也.(魂은 木에 속하고 魄은 金에 속한다. '삼혼칠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삼과 칠이) 금과 목의 수이기 때문이다.)

##### ◀해의37하2▶

【三魂七魄】見〈訓門人四之六〉.(〈訓門人四之六〉을 보라.)

우리는 이미 ③의 마지막 예문에서 【三魂七魄】을 보았다. 여기에서는 【三魂七魄】을 풀이하는 대신 ③의 마지막 예문인 〈訓門人四之六〉을 지적하여 상호 참조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것을 문단 간의 '互註'라 부르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③의 첫 문장 주석에 보이는 【母子】母子, 謂母也, 非謂母與子也. 見〈論語學而三十六〉《解義》도 이러한 '互註'의 사례인 것이다. 《朱子語類》는 200만 자가 넘는 방대한 저작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종횡으로 텍스트를 넘나드는 '互註'는 가히 주석의 압권이라 할 만하다.

이상에서 본 ③과 ④는 《朱子語類》라는 텍스트의 속성에 부합하는 주석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考文'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로 하자. 다만 여기에서는 근대중국어와의 관련성이 적은 사례만을 들기로 한다. 왜냐하면 4장에서 중국어사 연구와 관련된 언어현상에 대한 주석을 따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 5) 구두(句讀)의 표시

중국어는 형태성분이 적고 띄어쓰기가 없어 문장의 구두기술이 필요하다. 만약 텍스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다면 올바른 구두를 할 수 없다. 다음의 구두 사례를 보기로 하자.

## ◀ 원문86-8-2204~5 ▶

子升問：“《周禮》如何看？”曰：“也且循注疏看去，第一要見得聖人是箇公平底意思。如陳君舉說，天官之職，如膳羞衣服之官，皆屬之，此是治人主之身，【此說自是】。到得中間有官屬相錯綜處，皆謂聖人有使之相防察之意，這便不是。……要之，後世若有聖賢出來，如《儀禮》等書，也不應便行得。如封建諸侯，柳【子厚之說自是】。當時却是他各自推戴爲主，聖人從而定之耳。……木之。(子升이 『周禮』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라고 여쭙었다. 말씀하시길 “역시 또 注疏를 따라 봐가야 한다. 먼저 성인이란 공정하고 치우치지 않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陳君舉가 말한 대로 天官의 직책은 음식과 의복 같은 것을 관장하는 것이 다 그것에 속하고, 이는 군주의 몸을 닮는 것이라 했는데 이 말은 맞다. 중간에 관직의 계속이 서로 얽혀있는 곳이 있는데 다 성인이 그로 하여금 서로 방비하여 살피게 했다고 한 이것은 맞지 않다. …… 앞의 것을 요약하자면 후세에 성현이 나오더라도 《儀禮》와 같은 책들은 역시 바로 행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封建諸侯에 관해서는 柳子厚(柳宗元 773—819)의 말이 맞다. 당시에는 분명히 그들이 각자 추대하여 군주가 되었으며 성인은 이로써 그것을 정했을 따름이다.”라고 했다.)

## ◀ 해의518-3 ▶

【此說自是】句. (구이다.)

【子厚之說自是】句. (구이다.)

앞의 예에서 보는 대로 이 문단의 두 곳에 ‘句’라고 주석했다. ‘句’란 문장이라는 의미이므로 그곳에서 문장을 끊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곳에서 끊지 않고 이어서 본다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기실 이 예는 ‘自是’의 용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구두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是’는 ‘맞다’, ‘옳다’의 의미로 현대중국어의 ‘對’에 상당한다. ‘自’는 부사로 ‘就’에 상당한다. 그러므로 이 두 예문의 번역은 ‘이 말은 바로 옳다.’, ‘유자후의 말이 바로 맞다.’ 등으로 해야 하며, 문장이 맺어지는 ‘句’인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朱子語類考文解義》의 주석은 다양한 체재를 갖추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朱子語類》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뒷받침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석의 체재에 대한 고찰은 이의철을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의 철저한 학문수양을 목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 우리가 이러한 주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朱子語類》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나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IV. 《朱子語類考文解義》를 활용한 중국어사 연구의 의의

《朱子語類》는 남송의 유가어록으로 방대한 분량과 높은 구어의 반영으로 중국어사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저작 중의 하나이다. 위로는 선종어록을 잇고 아래로는 명청소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연구한 《朱子語類》관련 성과나 특히 《朱子語類考文解義》와 같은 주석서는 중국어사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朱子語類考文解義》를 제대로 분석해야만 가능하다.

앞의 3장에서는 근대중국어 언어성분과 거리가 먼 의리에 대한 풀이를 중심으로 주석의 체재를 살폈다면 본장에서는 언어적인 주석인 ‘考文’을 다루기로 한다.

논의에 앞서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고문능력과 共時 중국어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기로 하자. 당시의 지식인은 독서와 서사를 고문으로 했다. 그리고 중국어를 입 말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었다. 그렇다고 유가어록 이전에 유입된 선종어록을 보편적으로 읽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退溪선생 이후 조선 성리학이 분계도에 오르면서 경서뿐만 아니라 구어로 된 어록문헌이 기본서로 격상되었다. 어록문헌의 대표적인 텍스트로는 《朱子語類》, 《朱子文集》, 《性理大典》, 《四書三經大典》, 《心經附註》 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읽고 구사하는 고문만으로는 이러한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이에 퇴계선생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은 어록에 대한 언어연구 즉 語錄釋義를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최초의 어록사전인 《語錄解》이며, 이후 《心經附註》나 《朱子語類》와 《朱子文集》에 대한 대대적인 주

석서들이 출현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노력은 가히 《朱子語類考文解義》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분량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증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바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인 語錄釋義는 또 한편으로 중국어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부합하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 1. 音註의 활용

古籍을 주석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辨字辨音이다. 고문이나 근대중국어 시기의 문헌자료들은 시대성 지역성 또는 규범화의 미비로 많은 異體字와 同源字를 활용했다. 특히 고전은 읽을 수 있어야 하므로 辨音은 독서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였다.

《朱子語類考文解義》에 보이는 音註의 사례를 보기로 하자.

#### ◀원문95-17-2419~2420▶

95:17 唐傑問：“近思錄既載‘鬼神者造化之跡’，又載‘鬼神者二氣之良能’，似乎【重了】。”曰：“造化之跡是日月星辰風雨之屬，二氣良能是屈伸往來之理。”蓋卿。(唐傑이 묻기를, “鬼神者造化之迹’(귀신이란 조화의 흔적이다)이라고 하면서 또 ‘鬼神者二氣之良能’(귀신이란 음양의 본래 그러한 것이다)이라고도 했는데 아마도 중복된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말씀하시길, “조화의 흔적’이란 日月星辰風雨 따위를 말하는 것이고, ‘음양의 양능’이란 굽혔다 펴지거나 왕래하는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 ◀해의607하2▶

【重了】重，平聲，謂重複。(重은 平聲으로 ‘중복되다’는 뜻이다.)

여기에 쓰인 ‘重’은 ‘무겁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鬼神者造化之跡’과 ‘鬼神者二氣之良能’가 의미적으로 중복해서 출현한다는 뜻이며, 저자는 성조와 의미를 밝혀 辨音하고 있다. 이러한 辨音은 고전의 주석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다. 그렇다면 근대중국어 성분에 대한 음주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

## ◀ 원문59-180-1417~8 ▶

“苟爲不熟，不如稊稗。”君子之志於道也，不成章不達。”如今學者要緊也成得一箇【坏模】定了，出治工夫却在人。只是成得一箇【坏模】了，到做出治工夫，却最難，正是天理人欲相勝之地。……賀孫。（“다섯 가지 곡식【五穀】이) 만약 익지 않으면 피만도 못하다.”(《孟子·告子上》) “군자가 도에 뜻을 두었다 하더라도 문채를 이루지 못하면 나아가지 않는다.”(《孟子·盡心上》)라고 했다. 지금 배우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확실히 하나의 거꾸집을 이루는 것이지만 도야【陶冶】하는 공부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다. 단지 하나의 거꾸집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도야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우니, 이것이 바로 天理와 人欲이 서로 겨루는 곳이다.)

## ◀ 해의282하1 ▶

【坏模】坏，音“丕”，與“坯”同。字書：“陶瓦未成曰坯。”，蓋言物之質也。模，模樣也，皆根基樣子之義。(坯의 음은 “丕”<sup>14</sup>)로 “坯”와 같다. 字書에는 도자기나 기와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坯”라고 했으니, 대체로 사물의 質을 말한다. 模는 “模樣”이니 다 기본 바탕이라는 뜻이다.)

해의에서는 坯에 대해 음주를 달고 字書까지 인용하며 풀이하고 있다. 【坏模】는 송대의 新詞이다.<sup>15)</sup> 이렇듯 《朱子語類考文解義》에서는 근대중국어의 언어성분에 주의하여 音註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2. 字書의 활용

근대중국어의 새로운 성분은 왕왕 共時 字書에 그 흔적이 반영되기도 한다. 아래 예에 보이는 ‘躡’이 그것이다.

## ◀ 원문25-129-634 ▶

……但古人用兵，與後世不同。古人只【躡將退】，【便是贏】，那曾做後世樣殺人，或十五萬，或四十萬，某從來不信。謂之多殺人，信有之。然指定數四十萬，必無此理。……”賀孫。

14) 《康熙字典·土部·五》坯：《集韻》：攀悲切，音丕。山再成。又貧悲切，音邳。與坯同。

15) 《漢語大詞典》에서는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예문으로 송대의 《朱子全書》 卷一：“古者小學，已自暗養成了，到長來已自有聖賢坏模。”를 들고 있다.

.....그러나 옛사람들이 군대를 운용하는 것은 후세와 같지 않았다. 옛사람들은 단지 압박하여 물러나게 하면 바로 이긴 것이었으므로 어찌 후세에서처럼 혹은 15만, 혹은 사십만을 죽인 적이 있는가?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숫자를 40만이라고 확정하는 그런 이치는 분명히 없다. ....

◀해의143-1▶

【趨將退】趨, 字書, 走也. 又曰逼使走也. (趨은 字書에 走라했다. 또 逼使走라고도 했다.16)

만약 여기의 趨를 ‘走’라고만 풀이한다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다행히 송대의 共時 字書인 《集韻》에 ‘逼使走也’라는 풀이가 남아 있었고, 그것을 이의철이 발견해 주석했으므로 이 문장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앞의 音註 예인 ‘坯’에서도 보이는 바, 字書에 ‘陶瓦未成曰坯.’라고 한 것을 적절히 인용하고 있다.

### 3. 漢語, 語錄 표기

조선시대에 漢語는 일반적으로 입말중국어어를 지칭했다. 한편 당시 지식인은 語錄을 구어로 인식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朱子語類考文解義》에 이 두 용어로 근대 중국어 언어성분을 적시한 용례가 있다는 것이다.

◀원문2-5-12▶

問同度同道. 曰: “天有黃道, 有赤道. 天正如一圓匣相似, 赤道是那匣子相合縫處, 在天之中. 黃道一半在赤道之內, 一半在赤道之外, 東西兩處與赤道相交. 度, 却是將天橫分爲許多度數. 會時是日月在那黃道赤道十字路頭相交處【厮撞着】. 望時是月與日正相向. 如一箇在子, 一箇在午, 皆同一度. ....” 備(同도와 同道에 대해 여쭙었다. 대답하시기를 “하늘에는 황도가 있고 적도가 있다. 하늘은 마치 둥그런 상자와 같으며 적도는 그 상자가 서로 맞물리는 곳으로 하늘의 가운데

16) 《康熙字典·走部·十九》趨:《廣韻》: 藏旱切.《集韻》: 在坦切, 𦘒音攢. 散走也. 又《集韻》: 宗蘇切, 音租. 走也. 又子罕切, 音攢. 又祖管切, 音纂. 義𦘒同. 又《廣韻》《集韻》: 𦘒則吁切, 音讚. 逼使走也.

<http://ctext.org/dictionary.pl?if=gb&char=%E8%B6%B2> 참조.

있다. 황도의 절반은 적도의 안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적도의 밖에 있어 동쪽과 서쪽의 두 곳에서 적도와 서로 교차한다. 반면 도【度】는 하늘을 가로로 여러 도수로 나눈 것이다. 會時란 해와 달이 저 황도와 적도가 십자로(十字路)에 서로 교차하는 곳에서 서로 부딪치는 때이다. 望時란 달이 해와 정면으로 서로 마주하는 때이다. 마치 하나는 자(子)의 위치에 다른 하나는 오(午)의 위치에 있어 다 같은 도수가 되는 것이다.....”라 하셨다.)

◀해의26-2▶

【廝撞着】廝, 漢語訓作相, 謂日月兩相和也。撞, 擊也, 兩物相遇輒擊也。(廝는 중국어로 “相”으로 풀이하며, 해와 달이 서로 서로 더불어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撞은 부딪친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서로 만나 빠져거리며 부딪친다는 것이다.)

◀원문94-111-2387 ▶

……而今看他說【這物事】，【這機關一下撥轉後，卒乍攔他不住】。聖人所以‘一日二日萬幾，兢兢業業’，‘如臨深淵，如履薄冰’，只是【大化恁地流行】，【隨得是，便好；隨得不是，便喝他不住】。…… 義剛. (지금 그가 말한 이 물건, 이 장치가 한번 밀어서 돌아가면 짧은 시간에 멈추게 할 수 없다. 성인께서 ‘一日二日萬幾, 兢兢業業’(하루 이틀만에라도 온갖 일의 사단이 생길 수 있으니 삼가 조심하고 두려워하소서.)하고 ‘如臨深淵, 如履薄冰’(깊은 못에 임한 듯, 얇은 얼음을 밟듯 하시네.)하신 까닭은 단지 큰 변화가 그렇게 돌아가서이니, 맞게 따르면 좋고 잘못 따르면 그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해의597-3▶

【這機關一下撥轉後，卒乍攔他不住】一下, 猶一次, 語錄文.(一下는 ‘一次’의 뜻으로 語錄의 단어이다.)

우선 앞의 예문에서는 ‘廝’를 漢語로 보고 ‘相’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뒤의 예문에서는 ‘一下’를 語錄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漢語는 입말 중국어이며, 語錄은 구어체 중국어임에는 틀림없다.

#### 4. 허사에 대한 인식

고대의 주석서에는 현대의 그것처럼 정교한 품사표시가 없다. 다만 중국어 어법 사에서는 일부 훈고 저작들에서 허사를 ‘辭’, ‘語辭’, ‘發語辭’ 등으로 표시하기도 한

다. 당시 지식인의 입장에서 고문의 경우 이미 알고 있는 허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표시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록의 경우 상당수가 새로 생겨난 허사들이므로 반드시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들어 보기로 한다.

◀원문3-80-54▶

論鬼神之事，……今逐年人戶賽祭，殺【數萬來頭】羊，廟前積骨如山，州府亦得此一項稅錢。……先生曰：“人只了得每日與鬼做頭底，是何【如此無心得】則鬼神服？若是此心洞然，無些子私累，鬼神如何不服！”賀孫。淳同。(신에 관한 일에 대해 논하시며 …… 지금은 매년 민간에서 賽祭(농촌에서 행해지는 제사연극의 일종)를 지낼 때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 묘당 앞에 산처럼 쌓아 쌓여 있으며, 州府에도 역시 이에 대한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선생께서는 “사람들은 매일 귀신과 상대할 줄만 아니 이 어찌 이처럼 무심하게 대하기만 하면 귀신에게 끌려 다니겠는가? 만약 이 마음이 환하고 조금도 사욕에 얽매이지 않으면 귀신이 어찌 복종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셨다.)

◀해의40-1▶

【數萬來頭】來，辭也。(來는 辭이다.)

【如此無心得】得，語辭。(得은 語辭이다.)

【數萬來頭】의 ‘來’는 概數助詞로 현대중국어에도 그대로 쓰인다. ‘十來歲’라고 하면 ‘열 몇 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수조사는 고문의 그것과 차이가 나므로 주석자는 ‘辭’라고 적시하여 허사(조사)인 것을 밝혔다. 아래의 ‘得’도 ‘語辭’라 하여 실사의 의미로 보면 안 된다고 하였다.

《朱子語類考文解義》에는 ‘辭’나 ‘語辭’이외에도 ‘助語聲’이나 ‘語助辭’라고 한 것도 있다.

◀원문95-35-2425▶

“‘生之謂性’一條難說，須子細看。此一條，伊川說得亦未甚盡。‘生之謂性’，是生下來喚做性底，便有氣稟夾雜，便不是理底性了。前輩【說甚】‘性惡’，‘善惡混’，都是不曾識性。到伊川說：‘性即理也’，無人道得到這處。理便是天理，又那得有惡？……” ……賀孫。(‘生之謂性’에 관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자세히 보아야 한다. 이 조목에 대해서는 伊川선생 역시 그다지 치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生之謂性’이란 태어날 때의 性이라고 한 것이므로 기질로 부여받은 것이 섞여 있어 理에 부합하는 性이 아니다. 선배들이 무슨 ‘性惡’, ‘善惡混’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性을 모르고 말한 것이다. 伊川 선생이 ‘性卽理也’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아무도 이 점을 말하지 않았다. 理란 天理인데 또 무슨 惡이 있겠는가?)

◀해의608-2▶

【說甚】甚, 何也, 助語聲, 見〈大學或問下三十九〉.(甚은 何의 뜻으로 助語聲이다. 〈大學或問下三十九〉에도 보인다.)

◀원문18-115-420▶

……所以今江西諸公多說【甚大志】，開口便要說聖說賢，說天說地，傲睨萬物，目視霄漢，更不肯下人…… 道夫.(그러므로 지금의 江西 지방의 여러 사람들이 무슨 큰 뜻을 자주 말하며 입만 열면 성인이니 현인이니, 하늘이니 땅이니 말하며 만물을 업신여겨 결눈질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더욱이 사람 아래 있으려 하지 않는다.)

◀해의110-1▶

【甚大志】甚, 何也, 是語助辭. 如今人說某事, 必先曰何以助之, 又見〈論語雍也末章考異〉.(甚은 ‘何’의 뜻으로 語助辭이다. 마치 지금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 말할 때 반드시 먼저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는 것과 같다. 〈論語雍也末章考異〉에도 보인다.)

두 예에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것은 ‘甚’으로, 그 용법은 虛指이며 우리말로는 ‘무슨’, ‘뭔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현대중국어 어법술어로는 襯詞라고도 한다. 일종의 어기사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주석에서 말한 ‘助語聲’이나 ‘語助辭’가 바로 부합됨을 알 수 있다. ‘甚’자가 고문에는 이러한 용법이 없으므로 당시의 주석자에게 특이한 용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 5. 우리나라 어록연구 성과 인용

앞에서 이미 밝힌 대로 조선시대 어록연구의 성과는 실로 다양하고 많이 나왔다. 그중 《語錄解》는 유가어록을 읽기 위한 사전이다. 흥미롭게도 《朱子語類考文解義》에서 《語錄解》를 인용한 용례를 발견했다.

## ◀원문11-103-190▶

“讀書理會道理，只是將勤苦【睚將去】，【不解得不成】。……”璘.(“책을 읽어 도리를 이해할 때, 다만 힘들여 부지런히 해 나가기만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

## ◀해의73하2▶

【睚將去】睚，舉目也。於此不合，疑當作‘捱’，字書：‘捱，拒也。’又《語錄解》云：‘捱，抗也。’又上《論爲學十六》，有‘白睚’之文，他處多作‘捱’，蓋謂相抗拒用力之意。(睚를 ‘舉目’<sup>17)</sup>(눈을 들어 보다)으로 풀이하기도 하나, 여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아마도 옹당 ‘捱’로 보아야 한다. 字書에서는 “捱，拒也.”라고 했다.<sup>18)</sup>《語錄解》에서도 “捱，抗也.”라고 했다. 한편 앞의 《論爲學十六》에 ‘白睚’라는 말이 보이며, 다른 곳에서는 주로 ‘捱’라고 되어있다. 무릇 서로 버티어 힘쓴다는 뜻을 나타낸다.)

즉 ‘睚’에 대해 주석하면서 《語錄解》云：“捱，抗也.”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語錄解》가 많이 보급되었으며 이미 독립적인 辭書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는 근대중국어 언어성분의 주석과 관련하여 ‘音註의 활용’, ‘字書의 활용’, ‘漢語, 語錄 표기’, ‘허사에 대한 인식’ 및 ‘우리나라 어록연구 성과 인용’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朱子語類考文解義》가 비록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헌이지만, 대상 텍스트인 《朱子語類》가 남송 구어의 진면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 중국어사 연구에 적절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한두 가지 방법이나 소수의 단어 풀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수의 언어단위가 주석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두드러진다.

## V. 결어

17) 《康熙字典·目部·八》睚：《唐韻》：五佳切。《集韻》《韻會》：宜佳切。《正韻》：宜皆切，𠀤音崖。《說文》：目際也。《類篇》：舉目也。

18) 《康熙字典·手部·八》捱：《集韻》：宜佳切，音崖。拒也。又俗謂延緩曰捱。



그간 우리 고문헌이 중국어사 연구에서 직접 활용된 사례는 《노걸대》 등의 회화서에 국한되었었다. 그러나 우리의 문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어사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자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語錄釋義 연구 성과이다. 조선시대의 학술사에서 어록의 연구는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朱子語類考文解義》는 이 방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英祖 50년(1774) 李宜哲이 완성하였다.

본고는 《朱子語類》 全篇의 주석서인 《朱子語類考文解義》를 대상으로 목차와 주석의 구성을 정리하고, 나아가 일반 註釋과 어록 주석으로 나누어 주석의 체재를 살펴보았다. 이를 다시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전체 단락이나 한 대화의 대의 해설
- ② 특정 어구나 구절에 대한 해설
- ③ 典籍의 출처 표시
- ④ 서로 다른 문단을 활용한 互註
- ⑤ 구두(句讀)의 표시
- ⑥ 音註의 활용
- ⑦ 字書의 활용
- ⑧ 漢語, 語錄 표기
- ⑨ 허사에 대한 인식
- ⑩ 우리나라 어록연구 성과 인용

그중 ①~⑤는 일반 주석에 해당하고, ⑥~⑩은 어록주석에 해당한다. 이들 주석의 체재는 실로 다양하고 《朱子語類》의 텍스트적 특성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중국어의 언어성분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중국어사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어록의 주석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발달하지도 않았고 남아있는 문헌도 거의 없다. 왜냐하면 당시의 중국인들은 어록을 접하면서 언어적 장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록석의 연구 성과는 그 가치가 한층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朱子語類考文解義》의 숨겨진 면모를 발견했다. 다만 자료가 워낙 방대해 전면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향후 이 방면의 연구를 좀 더 다양하게 추진하여 《朱子語類考文解義》의 위대한 성과를 우리가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1. 原典 및 《朱子語類》 번역서  
 (宋) 黎靖德 編, 王星賢 点校本, 《朱子語類》, 北京: 中華書局, 1994.  
 (宋) 程顥, 程頤 撰, 二程遺書/ 二程外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李宜哲, 《朱子語類考文解義》(규장각 소장본 원본), 1774(영조 50년).  
 \_\_\_\_\_, 《朱子語類考文解義》上·下, 民族文化文庫, 2001.  
 李宜哲 著 이영호·정선모 主編, 《朱子語類考文解義》,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허택 外 역, 《朱子語類》, 도서출판 청계, 1998.  
 이주행 外 역, 《朱子語類》, 소나무, 2001.  
 《語錄解》, 《韓國文化》, 第4輯 韓國文化研究所 1993 印本.
2. 研究書, 論文  
 金駿錫, 〈조선후기 畿湖士林의 朱子 인식 -朱子文集語錄 연구의 전개과정〉, 《백제연구》 1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7.  
 大谷森繁, 〈語錄解について—その書誌學的檢討と朝鮮小説史からの考察〉, 《朝鮮學報》 第99,100合集, 朝鮮學會, 1981.  
 藤本幸夫, 〈朝鮮版《朱子語類》考〉, 《富山大學人文學部紀要》 5, 富山大學人文學部, 1981.  
 \_\_\_\_\_, 〈朝鮮における《朱子語類》—それは如何に扱われたか〉, 《朝鮮學報》 78, 天理大學 朝鮮學會, 1976.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3.  
 柳鐸一, 〈朱子文集의 韓國的 收容과 展開〉, 《第一屆中國域外漢籍國際學術會議 論文集》, 國學文獻館, 1986.  
 \_\_\_\_\_, 〈朱子書節要注釋의 脈絡과 그 注釋書들〉, 《書誌學研究》, 第5,6合輯, 書誌學會(延大), 1990.  
 朴甲洙, 〈語錄解에 대하여〉, 《李應百博士回甲紀念論文集》, 寶晉齋, 1983.  
 박종천, 〈우암학파의 주자어류소분(朱子語類小分)에 대한 연구〉, 《역사와 담론》 제53집, 호서사학회, 2009.

- 裴賢淑, 〈宣祖初 校書館活動과 書籍流通考 - 柳希春의 〈眉巖日記〉分析을 中心으로〉, 《書誌學研究》 25, 書誌學會, 2003.
- 石立善, 〈古本朱子語錄について - 《朱子語類大全》未收錄語錄書三十七種〉, 《東アジアの宗教と文化》,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2007.
- 宋穢, 〈李滉 自筆校正本《朱子語類》의 價値와 그의 學問方法論(修養法)〉, 《歷史學報》 47, 歷史學會, 1970.
- 阿陪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學出版會, 1965.
- 安秉禧, 〈語錄解題〉, 《韓國文化》 4集, 韓國文化研究所, 1983.
- 汪耀南, 《注釋學綱要》, 語文出版社, 1997(박재건 역, 《문자교감 그리고 注釋의 異名과 釋名》, 태일사, 2001).
- 禹貞任, 〈조선전기 性理書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부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友枝龍太郎, 〈朱子語類의 成立 - 付朱子大全〉, 《朱子思想の形成》, 日本: 春秋社, 1979.
- 李忠九, 〈退溪의 經書釋義에 대한 考察〉, 《退溪學研究》 第6輯, 檀國大 退溪學研究所, 1992. 11.
- 이향준, 〈朱子語類의 해석을 위한 시론: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범한철학회논문집 제44집, 범한철학회, 2007.
- 林東錫, 《朝鮮譯學考》, 臺灣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82.
-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陳榮捷, 《朱子門人》, 臺北: 臺灣學生書局, 1982.
- 胡適, 〈《朱子語類》의 歷史〉, 《朱子語類》, 臺北: 正中書局, 1970.
- 강용중, 《朱子語錄解研究》, 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5.
- \_\_\_\_\_, 《朱子語類詞彙研究》, 中國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 \_\_\_\_\_(a), 〈근대 중국어 어휘연구의 구성과 요건에 대한 시론〉, 《중국문화연구》 제10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07.06.
- \_\_\_\_\_(b), 〈宋儒語錄詞彙研究和《漢語大詞典》 - 以《二程集》與《朱子語類》爲中心〉, 《중국문화연구》 제35집, 한국중문학회, 2007.12.
- \_\_\_\_\_(c), 〈《朱子語類》方言 語法現象 研究 - 浙江 門人 三人이 사용한 介詞 “做”를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 한국중문학회, 2007.
- \_\_\_\_\_, 〈釋“鑿糟”〉, 《周口師範學院學報》, 2008/01.
- \_\_\_\_\_(a), 〈기록자 표지에 근거한 朱子語類 의 방언현상 연구〉, 《중어중문학》 제45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9.
- \_\_\_\_\_(b), 〈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朱子語類》의 특징〉, 《중국문화연구》 제38집, 한국중문학회, 2009.
- \_\_\_\_\_, 〈《朱子語類》의 언어학적 번역과 오역사례 연구〉, 《중어중문학》 제47집, 한국중

어중문학회, 2010.

### 【中文提要】

長期以來在漢語史的研究當中能夠直接應用的韓國古代文獻僅只限於《老乞大》一類的會話書。但是細細察看我們的文獻卻發現還是有相當充分的資料是可以應用到漢語史的研究之中的。這其中的代表性的事例就是關於語錄釋義的研究成果。在朝鮮時代的學術史上，關於語錄的研究可以說達到了一個前無古人的高度。英祖50年由李宜哲完成的《朱子語類考文解義》就是這方面的代表作。

本稿以《朱子語錄》的注釋《朱子語類考文解義》為對象，對目錄與注釋的構成進行整理，並進一步對分為一般注釋與語錄注釋的注釋體例進行考察。要點整理如下：

- ① 對整個段落或一段對話意思的解讀
- ② 對特定語句或句子結構的解讀
- ③ 表明典籍出處
- ④ 相互利用其它相關的記錄進行解釋
- ⑤ 標記句讀
- ⑥ 活用音注
- ⑦ 活用字書
- ⑧ 用‘漢語’，‘語錄’作標記
- ⑨ 對虛詞認識
- ⑩ 引用我國的語錄研究成果

其中的①~⑤條主要應用於一般注釋，⑥~⑩條則應用於語錄注釋中。實際上注釋體系是非常多樣的，這不僅可以從《朱子語類》中反映出來，如果集中注意近代中國語的語言成分的話，相信這也是一個在漢語史研究中可以活用的要

旨。一般來說，語錄注釋在中國並不發達，現在殘留的文獻更是寥寥無幾。因為當時的人們在接觸語錄時並沒有語言上的障礙。從這點上考慮，我國的語錄研究成果又進一步擴大它的其價值。

本稿從這樣的研究意識出發，嘗試發掘出《朱子語類考文解義》所隱藏的一面。但是非常可惜的是，因為資料過於龐大從而不能進行全面的研究。日後應該加強在這方面的研究，努力使我們能夠繼承《朱子語類考文解義》的偉大的研究成果。

### 【主題語】

《朱子語類考文解義》，語錄釋義(釋疑)，《朱子語類》，注釋體例，李宜哲

투고일: 2014. 10. 15 / 심사일: 2014.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4. 11. 10